



열기! 예배가 되다 젊은 세대에겐 친숙한 '강하고 깊은 예배'가 항상 인기를 끌고 있다. '오버플로인미니스트리'가 지난 18-19일 애틀랜타 하임 비즈니스엑스포센터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80여 교회와 연합해 대규모 워킹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정 1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참가한 많은 청년들이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의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관계기사 8면>

“21C, 제자도 바탕으로 협력선교 추구해야”

아시아선교협, 40주년 기념 제11차 대회서 선언문 발표

아시아선교협회(Asia Missions Association, 이하 AMA)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21세기 선교에 있어서 제자도(부주제: “협력과 새로운 선교 모델들”)를 주제로 제 11차 선교대회를 열었다. 지난 7-11일 한국 인천 송도에 위치한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에서다.

AMA는 한국 선교신학계의 원로로 꼽히는 조동진 박사가 1960년에 아시아 주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준비해 오다, 1973년 고(故) 한경직 목사를 포함해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에서 창립했다.

현재 대표는 풀러신학교 선교학 교수인 박기호 박사가 맡고 있으며, 본부도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44개국에서 250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선교 모델들과 제자도(Discipleship)에 관한 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아시아와 유라시아 각국 현지 선교지도

자 각 2명씩이 초청되어 회원국가 확장을 이뤄냈으며, 현재 제2세대 지도자들을 이을 제3세대 지도자의 발굴과 준비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아프리카의 MANI(Movement for African National Initiative) 대표 루벤 에즈마두 박사를 비롯 라틴아메리카 COMIBAM 대표 데시오 카르발호, Missio Nexus 대표 마빈 뉴웰 박사, WEA의 데이빗 루이스 목사, OMSC의 새 대표 벨슨 제닝스 박사, 한국세계선교협 의회 사무총장 한정국 박사, 로잔대회 대표 마이클 오 박사가 참석하여 단체의 현황을 보고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해, AMA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선교네트워크 구성에 앞장서게 됐다.

대회 마지막날인 11일에는 선언문을 통해 “21세기에는 진정한 제자도를 바탕으로 한 협력선교 모델들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부족했던 점을 고백하고, 세계교회를 위해 재헌신할 것”과 “더 큰 일치, 더 깊은 제자도, 그리고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보다 심오한 동일화를 추구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 전문.

1. 고백/제자도:

▷우리는 대위임령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불충분했음과 때로는 교회 전반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현혹시켜 왔음을 고백한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에서 대위임령을 성취함에 있어서 신실한 제자들이 된다는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함과 아울러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제자들을 양육하기를 추구한다.

2. 상황 변화/새로운 모델:

▷21세기 아시아에 있어 선교환경은 급격한 도시화, 포스트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세계화, 이민, 그리고 현대 기술의 개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해졌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우리가 변화하는 현실에 비추어 성경의 풍성함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선교에 있어서 신실한 새로운 모델을 찾고 개발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 7면으로 이어짐

신앙 인격 30년 목회가 과장? 그리스도의 성품이 관전

아주사대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

아주사대시립대학교 대학원이 주최한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가 지난 15일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에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와 노진준 목사(한길교회)가 각각 ‘리더십과 위기관리’, ‘리더십과 영적 권위’란 주제로 강연했다.

강준민 목사는 이날 “목회자에게 있어 위기란 변화와 새로운 대안을 요청하며 성장의 기회인 동시에 고통과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면서 “때에 따라 장애물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대체로 위기란 방향전환 표시이며 변장된 축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절 목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독서와 글쓰기로 힘들음을 이겨냈다”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성구 암송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위기의 순간에 힘들어야 한다”며 “목회자라 해도 우울증이 오거나 하면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강준민 목사 노진준 목사

한다. 목회자 스스로 잘 살피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

이어 발제한 노진준 목사는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세속적 정의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이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령 조지 바나는 크리스천의 리더십에 대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기능적 실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고 말했다.

설교에 대해서는 “설교자의 권위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신본적 권위가 아니다. 그리고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뿐, 본유적으로 참과 거짓이 나누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2면으로 이어짐
 토마스 멩 기자

社告

바른 목회 꿈꾸는 목회자를 초대합니다

본보 후원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



장재효 목사

바른 목회 연구원이 주최하는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가 오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전 세계 100여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를 17번이나 돌면서 교

회를 전하고 있는 장재효 목사(바른목회연구원장, 한국 성은교회 담임)가 나선다.

건강한 목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눌 예정이다.(중식 무료 제공)

>문의: (213) 739-0403

AB1266 페지 서명 캠페인 >> 3면 **다음 주 휴간**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바른 목회를 위한 남가주 목회자 초청 일일 세미나

강사 : 장재효 목사
 일시 : 1013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 JJ그랜드 호텔 (점심 식사 제공) *식사관계로 예약필수



장재효 목사

〈바른 목회의 중요성〉

1. 바른 목회는 예수님의 지시이다
2. 바른 목회는 성령께서 도우신다
3. 바른 목회는 구령성과를 위한 것이다

바른 목회는 책임목회이고, 성령께서 책임 있게 도우신다. 그래서, 목회자는 바른 목회를 힘써 자신의 생애를 복음의 제물로 희생과 헌신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를 힘쓸 때 교회 부흥과 선교확장을 통하여 성령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며 구령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신다. 결국 목회나 선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계마저 혼란한 이 시대에 오로지 주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런 종이 되어 요긴하고 다양하게 구령성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연구하며 준비합시다.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총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주최 : 바른 목회 연구원

문의 : 213-739-0403, 213-718-1512

“은사주의는 사단의 일” vs “중단 시점 아직 오지 않아”

존 맥아더와 마크 드리스콜 은사중단론 두고 정면충돌

미국에서 은사중단론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유명한 은사중단론자인 존 맥아더 목사(John MacArthur·그레이크뮤니티교회)가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 반대 집회를 열고 과격한 비난의 발언을 한 가운데, 마크 드리스콜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자신의 신간 사인회를 열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마크 드리스콜(마르스힐교회) 목사는 존 맥아더 목사의 '이상한 불(Strange Fire)' 컨퍼런스가 열리는 그레이크뮤니티교회에 들러, 자신의 신간인 'A Call to Resurgence: Will Christianity Have a Funeral or a Future?'을 소개하고 즉석에서 사인회를 열었다.

드리스콜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컨퍼런스가 열린 선 벨리에 들른 이유는 신학교 학생들과 협력 교단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드리스콜 목사는 그러나 선 벨리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존 맥아더 목사



마크 드리스콜 목사

이번 방문 목적을 "성령에 대한 컨퍼런스의 토론을 도울 수 있는 책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한 불(StrangeFire) 친구들 - 1시간 내로 봅시다. 나의 신간 복사본을 몇 권 가져갑니다. '종족주의 및 성

령'에 대한 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썼다.

드리스콜 목사는 컨퍼런스가 열리는 교회의 뒤편에 탁자를 두고 책을 비치한 후 사람들에게서 사인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대

기했다. 이 소식이 교회에 전해지자, 곧 주최측 관계자가 나와서 책의 배포를 금지했다. 드리스콜 목사는 줄서 있는 사람들과 계속 대화하며 악수를 하다가 이내 책을 치웠다. 이후 주최측이 책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드리스콜 목사는 "교회와 컨퍼런스 스태프들에게 책을 선물로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앞서 존 맥아더 목사는 자신의 집회에서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이상한 운동"이라고 비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칼빈주의자이자 은사중단론자로 알려져 있는 맥아더 목사는, 은사주의 운동 내에서 발생하는 비성경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데 앞장서 왔다.

맥아더 목사는 '이상한 불'이라는 제목은 레위기 10장 1~3절에 나타난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에서 따온 것이라며, 은사주의 운동 예배가 이 같은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맥아더 목사는 더 나아가 "은사주의 운동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 왜곡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는 성

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사단의 일을 성령의 일로 돌리고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서 속고 바른 길에서 벗어난다"고까지 그 비난을 확대했다.

드리스콜 목사는 은사중단론과 관련해 "우리는 은사중단론자들이 '최소한 일부의 은사가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데 동의한다. 은사는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은사중단론자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은사지속론자들에게 동의하는 점은, 은사가 그치는 시점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모든 은사가 세계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변화의 한 때가 올 때까지 지속된다고 믿는다"면서 "그렇다면 언제 이 모든 은사들이 그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볼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론자들이 맞다. 일부 은사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중단론자들은 틀린 점은 그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속론자들은 모든 은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볼 때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신학대학원 주최 리더십 세미나가 15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가든스위호텔에서 열렸다.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세미나에서는 강준민 목사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김한요 목사가 <리더십과 멘토링>, 노진준 목사가 <리더십과 영적권위>, 노창수 목사가 <리더십의 핵심가치>를 주제로 발제했다.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노진준 목사는 "따라서 설교자의 권위는 그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서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를 설교자에게 위임하신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노 목사는 영적 자질에서 비롯된 권위에 대해 언급, 디모데를 권면했던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그의 연소함을 교인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다. 당시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의 연소함이 사역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도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말과 행

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 권위는 실력이나 신분이 아닌, 영적 자질에서 비롯된다.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기혹 능력이 탁월해도, 인격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면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설교로 3년 목회하고 신앙인격으로 30년 목회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목회의 성공 여부는 목회자의 성품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순서에서는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교회)가 '리더십의 핵심가치'를 주제로,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가 '리더십과 멘토링'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p>VISIONDRIVE® HD BLACK BOX</p> <p>Wide Angle Recording 2.4" Color Wideview LCD Zoom Playback (4x, 8x) 2 Channel Black Box Automatic Loop Recording Built-in SD Sensor Passkey / Lock Security Emergency Alarm (Siren) SD Memory Card (16-32GB) Voice Guidance Support Car Wash Audio Recording Easy to Use / Simple Installation Multi Function Analysis Software Call Station Monitoring Automatic Parking Made Function Water Resistant</p>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p>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p>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남가주 새생명교회와 작은자UBM교회 성도일동은

2013년 제10차 WCC부산총회를 반대합니다

제2의 **신사참배**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동성애’ 문제 해결 위해 다시, 힘 모으자



새라 김 대표
TVNEXT.org 설립자
캘리포니아기독연대 한인대표

AB1266 법안 폐지 위한 서명 캠페인

“무효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

▷AB1266 법안의 문제점과 폐지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AB1266법안은 트랜스젠더 학생 즉 성전환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립학교에서 남녀 학생들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같은 시간에 혼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캘리포니아 법안으로, 지난 8월 초 주지사 제리 브라운에 의해 통과됐고, 이 법안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월부터 모든 공립학교 내 K-12학년까지 적용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폐지시키고자 남가주 전역에서 미국인 목회자들을 비롯해 변호사, 학부모들이 연대해 적극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한인사회 역시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SB48 때처럼 잘못 서명함으로 인해 무효처리되는 서명들이 속출할 경우, 이번에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모든 규칙들을 반드시 준수해서 여러분과 다른 분들이 서명한 것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 서명하면 나와 같은 청원서에 기입한 다른 서명들도 전부 무효화되고 맙니다.

▷두가지 자격 필수!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이고,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유권자(California voter registered)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이 계시면, 우선 DMV에 가서서 캘리포니아 사람으로 재등록해야 합니다. 개명한 분들 또한 DMV에 가서 재등록해야 합니다.(Register to Voter Form from DMV)

시민권자이면서 아직 유권자 등록

을 안하신 경우나 방금 18살이 된 청소년은 먼저 ‘유권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유권자 신청서는 주로 DMV나 우체국(Post office)에 가면 받을 수 있고, 유권자 신청서를 다 작성한 후 늦어도 3일 이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리턴(Return)주소와 우표는 다 이미 적혀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이번엔 한 분들은 유권자 등록지 서명(Signature) 밑에 있는 빨간색의 등록 고유번호를 청원서 이름 왼쪽에 있는 작은 칸에 꼭 기재해 주십시오. 이번에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만 쓰시면 되고, 그 외의 분들은 유권자 등록번호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서명시 꼭 지킬 사항들!

1. △2페이지 서명 가능한 짧은 청원서는 반드시 컴퓨터에서 인쇄하기 △프린트 할 때 스케일링 옵션(scaling option)을 ‘none’으로 하기 △짧은 청원서는 프린트된 원본(original)을 가지고 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복사본을 이용해 또 복사를 하게 되면 용지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절대 복사본으로는 복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양식의 청원서(Long form)는 8명까지 서명할 수 있고, 주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사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2. 각 청원서당 동일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명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csac.counties.org/cities-within-each-county> CA State Associations of Counties에 들어가서 모든 카운티와 도시 이름들을 인쇄해 두십시오.

만일 LA카운티에 거주하는 분들이

7번째에 서명하고 리버사이드(Riverside) 카운티 분이 8번째 칸에 썼으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분 것을 두 줄로 그어야 합니다. 잘못 들어간 서명이기 때문입니다. 리버사이드 분들 것은 다른 청원서에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긴 청원서는 꼭 8명을 다 채워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검정 또는 파란색 펜만 사용하기
4. 서명시 칸 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절대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 칸에 서명이 넘어갈 경우, 두줄로 그어서 지우신 후 그 다음 다음 칸 깨끗한 칸에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서명을 고치겠다고 절대로 백색 수정액(whiteout)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효처리 됩니다. 혹시 아주 조금 칸을 넘은 것이면 그냥 나뉘어도 됩니다.

5. 이름, 주소 칸에는 꼭 정자로 써 주시고 정해진 칸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무효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름 칸에는 면허증이나 여권에 있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정자로 쓰십시오.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면, 무조건 풀네임을 사용하여 청원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주소는 아래 위로 두 칸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뒷칸에는 집 번호(예:1234)와 길 이름(예: Brown Ave.)을 기재해야 합니다. 밑의 칸에는 도시(city) 이름과 zip code만 적으면 됩니다. CA, California는 적지 마세요. 주소가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주소는 주로 DMV에 등록된 주소와 같습니다. 절대 P.O. Box는 안됩니다. P.O. Box는 무효화 됩니다.

6.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십시오. 사인은 꼭 본인이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노인 분들이 글을 쓰지 못할 경우, 그분들의 라이선스(license)를 받아서 그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름, 주소는 대필해줄 수 있지만, 사인만은 그분들이 꼭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인할 때도 절대 자기 칸을 넘어가지 말아야 무효처리 되지 않습니다. 봉사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서명 받으실 때, 서명(Signature) 밑의 칸에 다른 종이로 덮어놓으시면, 혹시라도 사인이 넘어가도 문제가 없으니 시도해보십시오.

▷CIRCULATOR 란 작성법:

Circulator란은 단 한명의 서명자가 있더라도 꼭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 청원이 무효화 됩니다.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1. 유권자로 등록된 이름 쓰기. 잘 모르는 경우 풀네임으로 작성하기.
2. 당신이 투표 등록한 카운티 이름 쓰기. 예를 들어 LA인 경우 Los Angeles라고 작성하기.
3. 당신의 투표 등록된 거주 주소 전체 쓰기. 단 P.O. Box는 절대 안됨.
4. 당신의 서명을 수집하기. 시작한 날짜 쓰기.
5. 당신이 서명을 수집 완료한 날짜 쓰기.
6. 당신이 청원 양식 전체를 완료한 날짜 쓰기.
- 3, 4, 5번의 날짜가 같을 수 있습니다. 단 6번의 날짜가 무조건 가장 늦은 날짜인지 아니면, 5번과 같은 날짜인지 해야 합니다.
7. 서명 받았던 장소, 카운티 이름 쓰기(예: 산호세(Santa Clara County) 거주하시는 분이 LA카운티에서 샌디에고 카운티 사람들의 서명을 청원서에 받았으면, 2번에는 내가 투표 등록된 카운티가 Santa Clara이고 7번에

내가 서명을 받은 장소 카운티가 LA이므로 Los Angeles라고 쓰면 됩니다. 하지만 청원서 한장에는 샌디에고 카운티 사람들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7번은 제3의 또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8. 당신의 이름을 서명(signature) 합니다. 만약 사인이 없다면, 그 청원서는 전체가 무효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원서 한장을 다 완료하게 됩니다. 완성된 청원서는 맨 아래 주소로 보내기 전에 마지막 확인 단계를 거쳐 주시길 바랍니다.

1. 카운티 이름들이 세 군데 위, 중간, 맨 아래에 기재됐는지 확인
 2. 모든 서명자들이 같은 카운티에서 사는 사람들인지 확인
 3. 이름, 주소 등이 잘 적혔는지 확인하고 P.O. Box가 있는지, 잘못된 것 있는지 확인
 4. 잘못된 것, 실수한 것은 두줄로 그어주세요.
 5. Circulator 란의 8칸이 다 기재되었고 4, 5, 6번 날짜들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6. 청원서에 서명한 분들이 몇분이신지 집계해서, 집계된 숫자를 이메일 주소 tvnext.or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인서명 숫자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7. 청원서 맨 아래 주소로 이제는 부치면 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현재 미국인들도 열심히 서명에 동참하고 있어서 이미 30만 정도의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0-40만은 더 받아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세대를 위해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태바 선교회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을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ORT [Lajolla] [Fairfax] [Wilshire]

“수업은 엄격했지만 선하고 헌신적이었던 분”

한남대학교 초창기 성문학과 교수 모요한 선교사 노스캐롤라이나서 소천



고(故) 모요한 선교사

한남대학교 초창기에 성문학과 교수로 19년간(1958~1976) 봉직하며 헌신적인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던 모요한 선교사(Dr. John Moore·사진)가, 지난 10월 9일 오전 그가 거주하고 있던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 마운틴에서 소천했다.

장례예배는 지난 12일 블랙 마운틴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의 한남대학교에서는 16일 교직원 예배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시간을 따로 가졌다.

이문균 목사(한남대 성문학과 66학번)는 “모요한 선교사는 수업에는 매우 엄격했지만, 정말 선하고 헌신적인 분이었던”고 회상했다. 또한 모 선교사가 형편이 어려웠던 학생을 위해 학비를 대신 내주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한남대 교직원들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모요한 선교사의 생전 당부를 전하면서, 최근 정성균 기념관으로 명명된 기독교선교

센터의 한 공간을 ‘모요한홀’로 명명하자는 제안을 했다. 한남대는 선교사들의 장학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교내 몇몇 건물을 인돈기념관(대학본부), 계의돈기념관(구 이과대학), 서의필홀(56주년기념관 공연장) 등으로 명명해왔다.

한남대 초대 미주동문회장을 지낸 이현철 동문은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스승이시요 훌륭한 목사님께서 우리의 결을 영원히 떠나셨다는 생각에 슬픔과 허전함,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문을 보여주고 가셨기에, 이런 분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 또한 금할 길 없다”는 추모의 이메일을 동문들에게 보냈다.

한편 모요한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 출신으로 리치몬드 유니온신학교와 보스턴대학 신학부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거친 후 1955년 29세의 나이로 한국에 입국, 1991년까지 36년간 부인 모가연(Katherine Boyer, 한남대 초대 도서관장, 전주예수병원 간호부장) 선교사와 함께 전주, 제주, 대전 지역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2013 세계한인지도자 시애틀 대회〉 차세대 한인 정치인 양성에 박차

차세대 한인 정치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인 2세들에게 주류사회 정치인으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할 <2013 세계한인지도자대회>가 오는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한미정치교육장학재단(이사장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과 세계한인정치인협회(이사장 임용근 오리건주 전 상원의원)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25일 오후 6시 시애틀 차이나타운 아시안 리소스센터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26, 27일 더블트리 호텔에서 본 대회를 열고, 참석자 가운데 30명을 선발해 5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대회를 통해 차세대 한인 정치인으로 주목받는 대학생 및 청년들을 별도로 선발해 연간 6,000달러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야제 기간 중 가야금 명창이 벌이는 화려한 국악 공연과 K-POP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되며, 본 대회기간에는 신호범, 임용근 의원이 주강사로 나서 강연을 펼친다. 또한 요나 마틴 캐나다 BC상원의원 등 세계 한인 전 현직 정치인 및 주요공직자 100명

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아울러 대회 기간 중 세계 한인 정치인 컨퍼런스 및 차세대 지도자 리더십 포럼이 동시 진행돼 차세대 한인 정치 지망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정치에 꿈을 두고 있는 20~30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한인 청년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호범 의원은 “수년 전부터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한인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장학회를 조직하고 장학금을 주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3명에게 2000불, 그리고 30명에게 500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임용근 전 의원은 “한인 2세들의 정계진출을 위한 길잡이 노릇을 할 것”이라며 “한인 2세들이 훌륭한 미 정계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문의: (206)200-1444(정정이) (206)883-2621(데이비드 김)

교회 연합사역 펼치는 미주복음방송, 후원 만찬의 밤

AM1190 오너캐리 운자상환을 위한 특별만찬 가져



지난 15일 미주복음방송 후원 만찬의 밤 행사가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렸다.

미주복음방송(GBC)이 AM1190 오너캐리 운자상환을 위한 후원 특별 만찬의 밤을 15일 오후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가든스윗호텔에서 개최했다.

GBC는 지난 2011년 2월말 1200만불 가격으로 스테이션을 구입할 당시 공개모금 방송을 통해 다운페이먼트 자금 200만불을 마련했고, 나머지 1천만불 가운데 은행 용자로 9백만불을, 미 방송사로부터 차입한 ‘오너캐리’(Owner Carry: 오너가 구입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형식)로 1백만불을 지불했다. 이는 당시 연이자율 7퍼센트로 3년 내에 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앞으로 2014년 2월까지 총 60만

불, 이밖에 은행용자는 800만불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GBC 사장 박신욱 목사는 이날 사역보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 방송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믿고 있다. 커뮤니티와 사회를 바꾸는 것은 한 개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며 “사람들은 ‘미주복음방송’ 하면 ‘방송사역’이라고만 생각하지 모르지만, 사실 교회 연합사역이기도 하다. 항상 ‘연합’이라는 한 가지 기도제목물 놓고 기도하고 있다. 지나온 21년간의 방송사역을 돌아봐도 교회 연합사역이 주된 내용이었다. 흔히 연합사역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모세, 다

윗과 같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GBC 직원들의 특별찬양, 방송사를 위한 후원약정, 지역교회와 교회 연합을 위한 합심기도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병희 목사(세계복음선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후원참여는 미주복음방송(www.kgbc.com)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거나 방송사로 전화해 약정하면 된다. GBC는 현재 AM1190 공중파로 남가주 일대에, AM880 공중파로 하와이에 24시간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문의: (213) 381-1190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213)386-3585

SANSAM 산삼(인디언이캔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체인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되어 온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섬김과 섬의 공동체

새장로교회 2013 가을 부흥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한 새장로교회(구: 성림한인장로교회)에서 김풍운목사님을 모시고 가을부흥성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이 귀한 가을말씀잔치에 초청합니다. 원영호 담임목사와 새장로교회 교인일동



- 주제: 건강한 신앙 (고후 13:5)
- 강사: 김풍운목사 (텍사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 일시: 2013년 10월 31일-11월 3일
- 장소: 새장로교회 본당 (구: 성림한인장로교회)

날짜	새벽(5시 45분)	저녁(7시 30분)
10/31		건강한 성도 (행 10:1-8)
11/1	건강한 마음 (사 40:3-5)	건강한 교회 (눅 19:1-10)
11/2	건강한 직원 (삼상 2:30)	건강한 믿음 (막 10:46-52)
11/3	주일 11시 예배: 건강한 가정 (잠 14:1)	



새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금요기도회: 저녁 8시	중고등부/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6시	금요모임: 저녁 8시



미국장로교 새장로교회 (담임: 원영호목사)
한미노회 The New Presbyterian Church

970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9(구: 성림한인장로교회) Tel: (323)665-8643

갈렘의 신앙성과

여호수아 14:6-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여년간 짓밟혀온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기 시작하시고, 유월절이 있는 후 광야로 3일길을 걸어갔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바란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12지파 중 족장 된 자 한 사람씩을 가나안으로 정탐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는 길에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그곳의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보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렘은 유다 지파에 속한 후손인데 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왕 바로의 무서운 채찍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해방의 기쁨을 안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후 돌아와서 갈렘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합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자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고 말하며 그 땅을 악평하며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의 말과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생각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말과 행동을 보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열 지파 족장들은 매사에 절망을 앞세우는 비관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시도해 보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갇혀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보살피심을 받아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2년여년간 광야생활을 통해 먹고 입을 것과 건강을 책임져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경향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죽어있고 그들의 앞날은 절망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기술이나 능력, 노력에 기대를 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는 산 믿음의 자세만 확실하면 필요한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시고 뒷바라지 해주신다는, 믿어지는 믿음의 소망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이미 그 모든 준비를 다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충정을 다할 것이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

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 처자가 사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민14:1-4)" 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보고에 절망을 나타내는 무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절망이 항상 그들의 의식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죽음을 부르며 죽음에 젖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두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나머지 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밭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말라(민14:7-9)"고 호소합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믿음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많은 시련과 환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믿음을 더욱 믿어지는 연단으로 훈련시켜 오셨으며, 나를 두고 택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정하신 사명에 대한 기대를 가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저절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렘의 호소에도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길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민14:11-12)"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

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민14:13-19)"라고 지혜롭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렘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14:20-24)"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주와 축복이 한꺼번에 구분되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4:30-35에서 하나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혀갔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었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사십 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환산하여 그 사십 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구원의 은갓 이적 기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믿어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과연 여호수아와 갈렘처럼 믿음의 성과로 결실할 수 있는 영생복락의 후사가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문은 열심히 드나들지만 결국 신앙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꾸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많은 이적기사를 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은택에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뜻과 반대되는 불신앙을 생활의 철학으로 알고 잘못 사는,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시킬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36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려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렘은 생존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갈렘은 85세에 그날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흑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렘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갈렘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정당한 내용을 말했고 결국 그는 그의 밭로 밟은 땅을 하나님이 쟁취 차지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축복을 자녀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이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려주는 엄청난 역사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신앙이 자기 자신만 망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죄값을 무거운 짐으로 물려주고 저주를 남기고 떠나야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여분네의 신앙성과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880 하와이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기독교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흥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극한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위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P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S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9월 9일 개강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4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3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풍성한 교회**(담임 박효우 목사)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 381-9490
- 등록비 : \$20(필수)
- 회 비 : \$120이상(성도 1인당 1불씩)

제출서류

입회자들은 제출서류를 2013년 10월 23일(수) 오후 5시까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문의: 총무 양경선 목사 (213)255-1725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격
(1) 회장: 목회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제15조)
(2) 수석부회장: 차기 회기에 회장 자격이 있는 담임목회자(제16조 2항)
(3) 부회장: 목회경력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제15조)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제출 서류
(1)이력서 (2)교단추천서 (3)목사안수증명서 (4)교회주보 (5)발전기금(캐시어체크)
* 후보자 본회 발전기금: 회장 \$5,000 수석부회장 \$3,000 부회장 \$1,000
- 교단 및 지역연합회 공천위원회 구성
일 시 : 2013년 10월 24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남가주 교협 회의실
- 공천위원회 모임
일 시 : 2013년 10월 29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남가주 교협 회의실
(1) 공천위원: 교협 회장단 추천 6명, 이사회 추천 6명,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12명
(2)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제출서류(10월 23일까지)
① 교단장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명단 2명
② 전화번호 및 이메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회장: 진유철 목사 ■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 office@thcck.org www.thcck.org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11)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가끔 내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시기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면 시기심이란 내 마음 깊이 숨겨져 있던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늘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시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육체의 소욕에서 떠나라(갈 5:17, 21)

한국 속담에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가까운 친척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내가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아담 안에서 살아온 습관된 육체의 소욕이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경우이다. 육체의 소욕은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내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나의 현실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인데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는 시기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촌이 눈을 사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조차 원망하게 된다. 왜 나에게서 고난과 슬픔을 주시고 사촌에게는 땅을 주셨는가 하면서 불평을 토한다. 이는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은 욕망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 시기가 불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사촌이 눈을 받았고, 나는 빌딩을 받았다면 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늘 살아간다.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이상으로 남이 무엇을 가졌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늘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자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것을 받았다면 내 받은 분량에 만족하라. 많이 받게 되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고난에 처해 있다면 감사하라. 아담 안에서 살아온 옛습관들을 치료받고 있는 순간인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료하시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고난도 함께 주신다.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잠 14:30)

호크마신학대 학장 이영두 목사

Autumn 가을

프랜시스 레드위지(Francis Ledwidge)

Now leafy winds are blowing cold,
이제 나뭇잎을 몰아가는 바람이 쌀쌀하게 부네요
And South, by West the sun goes down,
남쪽으로 서쪽으로 태양은 지고
A quiet huddles up the fold
양떼들은 조용히 웅기종기 모여드네요
In sheltered corners of the brown,
갈색 나뭇잎의 피신처 구석진 곳으로
Like scattered fire the wild fruit strews
흩어진 불꽃처럼 야생 과일이 널려있네요
The ground beneath the blowing tree,
바람 타는 나무 밑 땅에
And there the busy squirrel hews
그리고 거기 바쁜 다람쥐는 깎아 길을 낸다요
His deep and secret granary
그의 깊고 비밀한 곡식 창고에

And the night comes stary clear
그리고 별처럼 맑은 밤이 온다네
The lonely quail complains beside,
외로운 메추라기는 곁에서 한탄한다네
The glistening water on the mere
The glistening water on the mere
호수의 반짝이는 물
Where widowed Beauties yet abide,
거기 홀로된 미인 요정들이 아직도 산다네

And I, too, make my own complaint
그런데 나 역시 스스로 탄식한다네
Upon a reed I plucked in June,
6월에 내가 뽑아 만든 갈대 피리를 불어
And love to hear it echoed faint
And love to hear it echoed faint
그리고 희미하게 퍼져가는 것을 듣기 좋아한다네
Upon another heart in tone,
또 다른 가슴 위에 곡조가 되어

이 시를 쓴 시인 프랜시스 에드워드 레드위지(Francis Edward Ledwidge)는 아일랜드의 제인빌 스투인(Janeville, Slane, Ireland) 출신으로 '농민 시인' 혹은 '전쟁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검은 세에서 파운 '흑조 시인(The poet of the blackbirds)'이라는 별명도 유명하다. 이에 더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젊은 나이로 싸움터에서 전사한 '영웅 시인'라고도 불리운다.

9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난 시인 레드위지는 그의 나이 5살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의고 13살에 학교를 그만 두고 돈을 벌어야만 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농터에서, 구리쇠를 파는 광산에서, 거리를 보수하는 일에서부터 삼점 내 허드렛 일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돈을 벌어야만 했다. 이런 환경 탓에 시인은 어릴 때부터 가난의 쓰라림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가난 때문에 정규 학교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독학으로 실력을 길러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 앤 린치(Anne Lynch) 여사는 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게 하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레드위지의 시는 그의 나이 14살 되던 해에 이미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그러다 운 좋게 던세니 경(Lord Dunsany)이란 시인을 알게 됐는데, 그는 당시 더블린(Dublin)과 런던(London)에서 문인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던세니 경은 레드위지의 시집을 출판하는 데에도 문학적,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유명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도움으로 레드위지는 <들의 노래(Songs of Fields)>라는 시 모음을 출판하게 됐다. 그는 또 민족주의자였고 애국자이기도 했다. 영국의 음악가 마이클 헤드(Michel Head)가 그의 시 <Over the Rim of the Moon(둥근 달 너머로)>를 작곡해 널리 불려지고 있다.

<시 감상>

사람들은 흔히 가을을 좋아한다. 아마도 한여름 내내 찜통 더위에 시 달렸을지언정 살살 불어오는 바람이 나, 쌀쌀하게 부는 바람이 더위를 몰아쳐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레드위지가 노래한 이 가을에 대한 시는 영국 시인 존 키츠(John Keats)가 쓴 <가을에게(Ode to Autumn)>라는 시와 비교된다고 평론가들은 말한다. 뛰어난 언어적 표현으로 가을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서글프게 묘사한 부분은 물론 들관 풍경과 그곳 동물들의 모습을 시인 특유의 감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파스한 털옷을 입고 있는 양떼들이 추워서 웅기종기 낙엽이 모여드는 구석으로 떼지어드는 모습을 그린 구절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또 다람쥐의 생태를 노래한 부분에선 동물이나 사람이나 먹을 것을 준비하려는 요구는 같은 것이란 느낌을 받게 된다.

시를 읊조리고 있노라면 가을 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진다. 알고 보면 짝 잃은 메추라기 새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이리라. 호수에서 사는 요정조차 짝을 잃으면 헛헛하고 쓸쓸한 마음에 탄식할런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시인 역시 헛헛함을 달래고자 피리를 불며 자신의 외로움을 새의 가슴에 옮기려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이러한 심경을 노래한 곡이 있다. <아! 가을인가(김수경 시 나운영 곡)>에 나오는 “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 아아아 가을인가봐, 물통에 떨어진 버들잎 보고, 물 길는 아가씨 고개 숙이지”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 고개를 숙이는 것은 ‘도 한해가 가니 쓸쓸하구나’ 혹은 ‘난 올해도 시집을 못 가는구나’ 등 여러 모양으로 탄식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보면 가을은 탄식의 계절인가 보다. 레드위지가 한탄의 계절로 가을을 그린 연유도 여기에 있을 터다.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효식 교수

각재본분론(各在本分論)

하늘은 땅을 살리기 위해 있고(天在爲地生)
땅은 만물을 살리기 위해 있다(地在爲物生)
만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고(物在爲人生)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다(人在爲敬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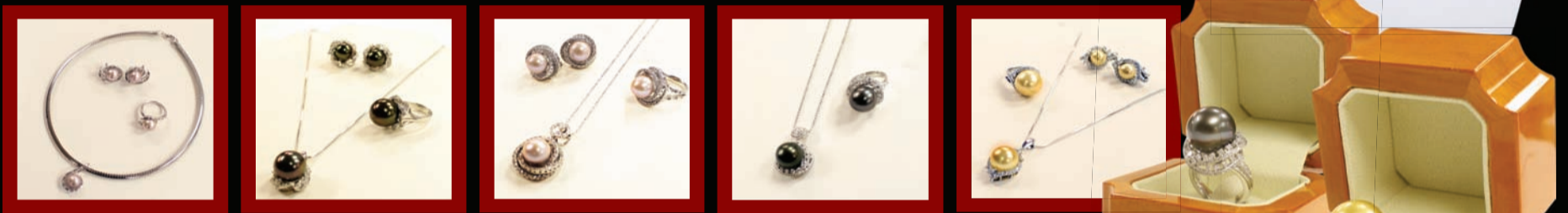
창세기 교훈(創世記教訓)

하나님을 섬기기를 열망하는 사람, 장재호 목사

진주전문회사 **Kobe Pearl** 이 플러튼과 엘에이 한인타운 그리고 벨리 세곳 에서 펼치는



100 이상 최대 진주보석, 홍산호 세트 초대전



통통했다!!

재물을 불러 온다는 **홍산호**가 캘리포니아 에서 통했다.



남양진주 해수진주 아코야진주등 4000여점 전시 특가 판매

"경제적으로 구입하실수있는 개주얼한 진주 제품부터 퀄리티 높은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남양진주제품 그리고 한국세공 유색보석 제품들이 전시 판매 됩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RED CORAL COLLECTION 천연홍산호 컬렉션 특별 전시 판매

고객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고베펠에서 천연 홍산호를 추가제작 하였습니다. 천연 홍산호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생태계 보호법으로 인해 희소성이 높아진 보석중 하나입니다. 3월의탄생석, 산호 중에서 가장 귀하게 치는 천연 홍산호 30여점의 세트 컬렉션과 다양한 진주세트 반지 및 비드 제품들을 지금 고베펠에서 만나보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강남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들을 만나보세요.

고베펠에서 마련한 스페셜 폭탄 세일

80% SALE



*담수진주 실버장식 Fresh Water Pearl w/ 925 silver clasp 제품입니다. *여러가지 색상 및 길이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특별세일 제품에 특성상 특정 인기 색상은 길이 제품이 품절이 있을수 있으니 구입을 서두르세요.

[플러튼 행사일정 안내]
행사일시: 2013년 10월 24일 (목) 단하루
행사장소: 플러튼 호텔 The Hotel Fullerton 크리스탈 B룸 Crystal B (91프리웨이 선상 EXIT #29에서 내리세요)

단, 하루!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 일정]
행사일시: 2013년 10월 25일 (금) 부터 26일 (토) 까지, 2일간.
행사장소: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Oxford Palace Hotel 2층 볼룸 (옥스포드와 8가 코너 아시마켓 옆)

[벨리 행사일정 안내]
행사일시: 2013년 10월 27일(일) 단하루
행사장소: 에어텔 플라자 호텔 Airtel plaza hotel Earhart room (벨리 한국마켓 옆)

단, 하루!

1500 South Raymond Avenue Fullerton, CA 92831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7277 Valjean ave, Van Nuys CA 91406

고베펠 페이스북 LIKE 누르고 선물도 받자!! FACEBOOK.COM/KOBEPEARL

고베펠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베펠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Kobe Pearl LAS VEGAS 진주전문회사 창립 9주년

문의 전화 213.308.6326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행사 특성상 특정 인기 행사제품의 품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상 예약이 많은 품목입니다. *구매처에 따라 세금 및 배송비를 부담합니다. *국산인 물품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특정 인기 제품을 구매할 경우 품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베펠은 고객님들께 정직한 판매와 감동의 서비스를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고베펠은 고객님들로부터 중고 보석제품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가공 및 Recondition 제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고객님들께 최상의 신제품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베펠 온라인 스토어 WWW.KOBEPEARL.COM VEGASTIMES.COM

한·중·일 연합과 다음세대 부흥의 해답은? 예배!



깊고 강한 예배를 표방하는 '오버플로잉워십컨퍼런스'가 지난 18-19일 애너하임 소재 비즈니스엑스포센터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오버플로잉미니스트리가 이끄는 이 컨퍼런스는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음악과 예배 형식을 통해 예배의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화려함을 좋아하는 세상 청년들에게 광란의 밤을 불사르는 나이트클럽이 있다면, 새벽이슬같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엔 '강하고 깊은 예배'가 있다. 오버플로잉 미니스트리가 이끄는 <2013 오버플로잉워십컨퍼런스>가 지난 18-19일 애너하임 비즈니스 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됐다. 특히 19일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장장 12시간에 걸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80여 교회들이 연합으로 예배드리

는 뜻깊은 순서가 마련됐다. 한국의 3곳의 오버플로잉교회와 애너하임의 오버플로잉교회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도와 고 있는 '강하고 깊은 예배'는 말 그대로 강하고(strong), 깊은(deep)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예배이다. 교회의 한 관계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강하고 깊을수록 예배 음악과



이창호 목사

찬양 또한 강하다. 오늘날 세상 미디어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 청년 대학생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강력한 예배 음악과 찬양으로 예배자들의 영을 깨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예배자들은 이 예배를 통해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마음껏 뛰기도 하며, 때론 춤을 춘다. 자유함 가운데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찬양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저녁 한인 회중을 대상으로 열린 집회에서 한국 오버플로잉교회 이창호 담임목사는 "지난 6년 동안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왔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간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 예배를 통해 한·중·일이 연합하고 다음세대가 연합해야 할 것을 선포한다"며 "오늘날 교회에 있어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를 통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아야 한다. 강하고 깊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오버플로잉 미니스트리가 작사·작곡한 강하고 깊은 찬양들이 소개됐고, 한·중·일 최고 수준의 예배팀이 찬양과 예배를 이끌었으며, OC교협 후원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제 3회 사우스베이 교회 연합창제

- 일시: 2013년 10월 27일 (주일) 오후 6시
- 장소: 시온연합감리교회
- 주관: 사우스베이 목사회

복음전도에는 전도·기도 그리고 사회책임 세 기둥 필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성시화지도자들이 참여한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전경.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 성황리 개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전용태 장로)가 주최하고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조직위원회와 서울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한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가 '평화의 물결, 한반도를 덮게 하소서! 성시화의 물결, 서울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지난 16-18일 열렸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성시화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회 첫째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국내외의 2013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웅장한 '메시야'를 부르며 개막했다. 이영훈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참된 성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교회 십자가 탐 앞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PPP(부산-판문점-평양) 십자가 대행진'도 진행됐다. 이날 총재 김인중 목사는 '성시화의 물결, 서울에서 세계로'(행 8:4-8)라는 주제의 첫째 기조메시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아 도망가면서도 도시마다 복음을 외쳐, 성령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부유해지니까 기도도, 전도도 안 한다. 성시화대회의 메시지는 복음전도의 초심을 되찾자는 것"이라면서 "복음전도의 세 가지 기둥으로 전도의 기둥, 기도의 기둥, 사회책임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목사는 "바울은 은혜의 복

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건물 세우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북한을 구하고, 아프리카와 구라과 영혼들을 살리는 데 선교비를 쓸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성시화의 물결이 세계 도시와 민족마다 가득하게 넘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임회장 소강석 목사는 '교회여, 다시 성시화의 불을 지피라'(렘 1:22-23)는 주제의 두번째 기조메시지에서 "오늘날 성시화운동은 반드시 교회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며 "교회가 복음의 본질 위에서 건강하게 서고 힘 있게 부흥할 때 성시화운동은 완성해진다"고 했다. 특별기도는 박영종 장로(전남본부 상임회장), 김영수 목사(마포구본부 대표회장), 최현숙 목사(유럽본부 공동회장), 김등모 목사(대전본부 대표회장)가 인도했고, 축사는 김영진 장로(PPP십자가대행진 조직위원장), 격려사는 박희민 목사(미주본부 대표회장)와 양인평 장로(세계본부 대표회장)가 했다. 신태진 기자

한인신학대 연합체육대회, 미주장신대 2연패



종합우승을 차지한 미주장신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가주 신학교 연합체육대회가 최근 풀러튼 은혜한인교회 인근 공원에서 열려 참석자들에게 친선을 도모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올해 행사에는 국제개혁신학대학교를 비롯,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

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미주갈리교신학대학교 등 5개교가 참가해, 축구, 배구, 발야구, 계주 등을 하며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2위 그레이스미션대학교를 물리치고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작년에 이어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이지는 기자

남가주성결교 원로장로회 초대회장에 하기언 장로



남가주성결교회 원로장로회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관계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가주성결교회 원로장로회 초대회장에 하기언 장로(나성성결교회)가 선출됐다. 원로장로회는 지난 13일 오후 4시 나성성결교회에서 하기언 초대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하기언 장로가 사 회를 맡았으며, 백문철 장로(유니온교회)가

기도했고, 정호윤 목사(나성성결교회)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자'(계 3:1-5)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2부 회의 순서에서는 교단발전을 위해 기도했고, 회원 상호간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박창민 기자

샌버나디노 창대교회, 15주년 맞아 감사예배

샌버나디노 창대교회(이춘준 목사)가 오는 10월 27일(일) 오후 5시 15주년 창립 감사예배를 동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또한 교회는 사회선교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오전 11시 교회 본당에서 (사랑의 나눔 행사(무료급식))를 실시한다.

BIZ

한국 세공 진주보석 홍산호 신제품 100세트 대거 전시판매



고베펠 사가 새로 선보이는 진주세트.

식 진주제품과 인공 핵진주 관련 신제품도 대거 선보이는 등 4천여점의 진주보석이 전시장을 화려하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베펠 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정가의 최고 80퍼센트까지 할인판매하는 최대 규모의 '핫한' 세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신나는 세일이다. 무엇보다 세일 폭에 있어 소비자들의 기쁨을 배가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베펠 사가 진행하는 이번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플러튼 행사
 - ▷일시: 10월 24일(목) 단 하루
 - ▷장소: 플러튼 호텔(The Hotel Fullerton, 1500 South Raymond Avenue Fullerton, CA 92831) 크리스탈 B룸 Crystal B (91프리웨이 선상 EXIT #29에서 하차)
- ▶LA한인타운 행사
 - ▷일시: 10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이틀간
 - ▷장소: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Oxford Palace Hotel, 745 S Oxford Ave LA CA 90005 옥스포드 와 8가 코너 아씨마켓 옆)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2층 볼룸
- ▶밸리 행사
 - ▷일시: 10월 27일(일) 단 하루
 - ▷장소: 에어텔 플라자 호텔 Airtel plaza hotel conference ctr, 7277 Valjean ave. Van Nuys CA 91406 (밸리 한국마켓 옆) Earhart room

진주전문 <고베펠 사>가 마련한 "2013 가을 맞이 진주보석쇼"에서 신제품 진주 세트가 대거 출품되면서 오는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총 4일에 걸쳐 플러튼과 LA한인타운 그리고 밸리 지역에서 잇달아 행사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에 고베펠 사가 주최하는 진주보석 쇼에서는 다양한 진주보석은 물론 홍산호 세트가 전시되는데, 레이저를 이용한 한국 강남 세공으로 손기술로 인한 그 정교함이 뛰어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베펠 사 는 또 지난 해부터 인기 폭발한 강남 세공 홍산호 관련 보석도 30여세트를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홍산호 목걸이와 반지 등은 이 보석을 착용하거나 끼게 되면 재운이 좋아진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동이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린 고베펠 사의 주력 상품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오랫동안 인기 상품으로 꾸준히 팔리고 있는 천연 양

박창민 기자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연합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 3119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영아예배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찬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c.net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2:00
2부예배 오후 12:00 주일학교 오후 2: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성광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생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최운형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1기,2기,3기,4기 수료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로션교사 양성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
OC부활교회 (아리랑마켓 뒤)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찬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넬렛 전번)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9:00 류종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의모습, 성경적코노미아, 만민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초.친.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간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혼/2배혼/약간/이혼/정신질환/치매/선교/영양운동하는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ung.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신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평화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9:30(화-금) 오후 6:00(토)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토)
3부 오전 11:30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에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베리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문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8:00
창신부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니/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여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교동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45/2부 11:45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흥장로교회
망목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통(通)하여 민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유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할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부만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후 1:00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할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토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토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누리 채움)
금요일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움)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분반)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종교혼합주의, 성경 권위와 신앙 기초 허물어뜨려”

한국교회개혁연대, 제3회 개혁포럼 ‘세속화를 경계한다’



이동주 박사



최덕성 박사

한국교회개혁연대(대표회장 강홍복 목사, 이하 연대)와 종교근본주의연구소(소장 문병길 목사) 주최로 제3회 개혁포럼 ‘한국교회 세속화를 경계한다’가 22일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기독교 혼합주의 진단”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동주 박사(아신대 전 교수)는 ‘한국교회 기독교 혼합주의와 영성’을 주제로 한국교회에 파고든 혼합주의 영성의 실태와 함께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기독교 혼합주의란 보통 기독교 이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통일교나 구원교, JMS 나 신천지처럼 이미 교회의 정죄를 받은 교회 밖 혼합주의 이단들이 있는 반면,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처럼 교회의 정죄를 받지 않고 교회 안에 공존하는 이단신학적 기독교 혼합주의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기독교 혼합주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사머니즘과의 혼합, 다른 하나는 유불선 범신론과의 혼합이다.

며 “교회 내 종교혼합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상실하게 하고, 표준이 되며 믿을 만한 신앙의 기초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훨씬 도전적”이라고 경고했다. 20세기 이단들은 주로 기독교를 왜곡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간을 신격화하다 교회 밖으로 쫓겨났지만, 21세기 이단들은 주로 성경론을 왜곡해 성경의 마술·귀신·비인격·비신격화를 꾀하고 뉴에이지 운동처럼 혼합주의적 종교 통합 운동을 시도하기 때문에 복음이 더욱 크게 훼손된다고 했다.

종교다원주의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해악

이어 최덕성 박사(브니엘신학교 총장)이 ‘그리스도를 왜곡한 종교다원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기독교에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타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 탈구조주의, 진리 상대주의, 혼합주의, 민족 문화, 종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성향과 맞물려 폭넓게 파급되고 있고, 최근 한국교회 안에도 강력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머니즘과의 혼합: 통일교, 변신환, 정현경의 ‘초혼제’

사머니즘과 혼합된 대표적 종파로는 ‘통일교’를 들었다. 이 박사는 “한국의 영적 혼합주의 사상은 김백문의 ‘신안인격론’과 ‘성신신학’에서 확인되는데, 이 사상은 통일교교주 문선명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문선명은 가정 배경부터 사머니즘적이었고, 그의 성령관에서 강신론적 혼합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수라는 ‘죽은 귀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선명에 의해 세워진 통일교는 ‘성령’과 ‘귀신’을 혼동하여, 지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속여 들어간 공생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성령이라 설명하고 있다.

최덕성 박사는 종교다원주의의 주요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역사적인 종교들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형성된 ‘구원의 길’로, 각 종교인들은 각각 다른 길을 거쳐 구원을 받는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셋째, 각 종교의 배후에는 ‘궁극적 신적 실재(Ultimate Divine Reality)’가 있어, 같은 신적 실재에 바탕을 두고 모두 동등한 가치의 종교 경험을 갖고 있다. 넷째, 각 종교는 고유한 것을 인정하면서 타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종교를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으로 특정 종교가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불멸의 진리 체계를 독점할 수 없다. 여섯째, 인간이 궁극의 신적 실재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 체험과 무당의 ‘강신(신내림)’과의 차이점에 대해 그는 “성경에서 ‘성령’은 죽은 귀신이 아니라 예수의 영(갈 4:6)이고, 하나님 자신의 영(롬 8:9)이시다”며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역사적 예수’와 ‘전파된 그리스도’의 동일성을 고백하게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순절 후 제자들에게 의해 전파된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전 12:3)”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들도 나열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산을 등정(登頂)하듯 각각의 종교를 거쳐 모든 인간이 동일한 구원에 이른다는 김경재 교수의 ‘등정으로 이론’,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니라는 로마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론(Anonymous Christology)’, 각 종교가 동일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가톨릭 사제 라미도 파니카의 ‘보편적 그리스도론(Universal Christology)’,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인 예수 중심에서 보편적인 신(神)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미 클레아몬트신학교 존 힉 교수의 ‘신 중심주의 신학’, 예수를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는 신 개념에 바탕을 둔 신 중심 신앙의 현현(顯現)으로 보는 폴 니터의 ‘신 중심주의 그리스도론’, ‘역사적 예수’의 연구 결과를 종교다원주의에 적용한 ‘예수 세미나’ 등이다.

기독교가 무속 문화권에 토착화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강신론적 혼합주의’는 정현경 교수의 ‘초혼제’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동주 교수는 “정현경 교수를 만나 ‘죽은 사람의 영과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가’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는 서슴치 않고 ‘둘 사이는 붉은 장미와 그 향기’라고 했다”며 “이는 힌두교 라마크리슈나가 비인격신과 인격신의 차이를 ‘우유와 그 흰색’, ‘다이아몬드와 그 광채’처럼 하나이고 같은 것이라 가르친 내용과 병행되고, 결국 정현경의 신학에는 사머니즘과 범신론이 혼합돼 있다”고 비판했다.

최덕성 박사는 “종교다원주의는 종교의 목적이 교리(dogma)를 전하는 데 있지 않다는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출발해 신앙인들을 향해 ‘자기 종교의 교리만 신봉한다’고 지탄한다”며 “종교다원주의는 상대주의의 진리관, 만민 보편구원주의, 종교혼합주의와 얽혀 있고, 결국 성경관으로 귀착돼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정현경은 창조주의 영과 죽은 사람의 혼 사이의 질적 차이를 전혀 구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감신대 학장 출신인 변신환의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함을 받은 사람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새로 부여하신 약속된 거룩한 영(행 1:8)이 아니라, 거룩한 영과 더불어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혼합주의 영”이라고 했다.

최 박사는 “진정한 진리는 배타적이고, 참과 거짓은 배타적일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점에서 ‘배타주의(Exclusivism)’는 자랑스러운 명칭”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일반 정서는 배타주의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유일주의’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은 오직 그의 대속 사역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유서 깊은 기독교 신앙을 말한다.

이동주 박사는 “범신론적 재래종교 사상을 전수하고 종교혼합주의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은 결코 타종교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며 “기독교의 구원 경험은 복음과 재래종교와의 혼합이 아니라 오히려 재래종교의 핵심 사상으로부터 철저히 회심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 ‘회개’라는 불연속성의 체험을 통해 교회는 새롭게 개입한 제3자, 즉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복음은 구약과 신약, 즉 언약과 성취라는 맥락에서만 연속성을 갖고, 기타 종교들과는 불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포럼에서는 열명수 박사(국제크리스천학술원장)가 ‘초대교회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등 혼합주의 태동실태’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으며,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고창근 목사(예장 대신 중경총회장)가 설교, 강홍복 대표회장(인사발, 문병길 소장)이 광고, 엄정목 목사(엘리트교회)가 축도를 각각 맡았다.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의미(8)

Hellenism과 Judaism에 대한 오해들

1) 헬레니즘은 개인주의적인가?

<10월 17일자 11면으로부터 내용 이어짐>

(2)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그러나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비판이 현대에 이르러 비롯된 것은 아니다. 우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가 그의 정치학에서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사유재산의 금지나 아내와 자식들의 공유와 같은 비현실적인 점들을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이 서로 돌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군인으로, 성년이 되어서는 정치지도자로서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종교지도자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러한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제시하였는데, 그의 국가관 역시 많은 학자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유재산이나 가정뿐



서승원 목사

만 아니라 사적 이윤의 추구도 허용했으나 그도 역시 공공과 집단의 이익을 사적, 개인적 이익보다 앞세우는 데 있어서는 플라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는 "개인과 국가의 정의가 서로 같다 하더라도 국가의 정의가 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신적(divine)이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 중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인간은 폴리스에서 살기에 적합한 존재라는 뜻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인간은 폴리스를 떠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만 특유한 사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희랍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

[IT 칼럼] 실생활에 유용한 어플

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한국 사람들처럼 배운에 빠른 민족도 없습니다. 똑똑해서 그저 슬쩍 보기만 해도 어디서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금방 '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배우고 익힙니다.

필자가 한국에서 컴퓨터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많이 뽑았는데, 채용 선발기준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시키고 결과에 상관없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가를 주의깊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기도구를 꺼내들고는 작업 순서를 도식화해 플로우차트(Flowchart)를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컴퓨터에 앉아 프로그램 작성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바로 시작하는 이들에 대해선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시작부터 90 퍼센트의 결과에 도달하기까지는 타인에 비해 엄청난 속도를 보이지만 마지막 남은 10 퍼센트에 있어서 결론엔 뒤쳐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은 일의 특성상 아무리 99퍼센트 완벽하게 작업했다 할지라도 단 1퍼센트로 인해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이 처음 회사에 들어오면, 친절하게 복사기나 전화기 사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듯 얘기하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가령 복사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당장 사용하는 것에 치중하기에 일상 업무 외의 다른 오더가 떨어졌을 때 그에 대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복사기조차 잘 다루지 못하는 무능한 사원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맙니다.

오래 전 한국 카이스트(KAIST)의 젊은 박사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날고 걷다' 하는, 소위 천재들이 모인 그곳 카이스트에서도 그는 아주 특이한 사람으로 평평이 나 있었습니 다. 한 예를 들자면, 수영을 배울 때에도 그는 맨 먼저 서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수영의 역사와 종류, 영법 등을 충분히 익히고 난 후에야 실제로 수영장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비로소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숙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오늘까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하나하나 원칙을 밟으며 튼튼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필자의 바람입니다.

한편, 이번 칼럼에서도 지난 번에 이어 실생활 가운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어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적립카드(Reward card)를 줄줄이 자동차 열쇠에 꽂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키링(Key Ring)'이라는 어플입니다. 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적립카드를 보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에 아주 편리한 어플입니다. 이것 하나로 내 자동차 열쇠 꾸러미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스토어(store) 검색창에 "key ring"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설치 후에는 카메라를 이용해 적립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바코드를 보여주면 직원이 스캐너를 통해 읽어옵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릴 어플은 '만개레시피'입니다. 이제 더이상 요리는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요리가 필수입니다. '만개레시피'라는 어플 안에는 실제 레시피가 1만개를 넘어 수십만개 들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된장찌개를 끓이더라도 수십 수백가지의 레시피를 참조하며 요리할 수 있고, 아내의 생일에도 맛갈스러운 미역국을 끓일 수 있습니다. 요리가 재미있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어 누구나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평계'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벽에 그림을 걸 때 누군가 수평이 맞는지 일일이 봐줘야 한다면, 이제는 이 어플을 이용해 보십시오. 다운받을 때 검색창에 "수평계"라고 치면, 많은 종류의 어플이 나오는데 그중 적당한 것으로 하나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어플 하나로 각이 맞는지 안맞는지 혼자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어플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수백여만개 어플 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 쓰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나눠 쓰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아닐까요? / 윤승준 남가주헬로소실교회 안수집사

남가주교협-LA총영사관 주최 <2013 한인건강 무료검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LA총영사관, 세인트빈센트병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3 한인건강 무료검진>이 지난 19일(토)LA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열렸다. ▲콜레스테롤·혈압·혈당 △침술 한방치료 △건강보험 ·오바마 △우울증 ·불안 △혈당 △체지방 △유방암메모그램·자궁경부암 검사 의료 서비스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예방주사 코너에는 많은 한인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2:45 수요일양예배 오후 7: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아래교회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평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구원하여 제자로세우는교회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재배 8:00 분당 금요공부 재배 8:00 분당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2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티에배 오전 9:30 금요일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독교는하나님이 크신것이다.하나님은우를담당한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중 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주일학교 오전 11:00 한국교회 (토) 오전 10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세리토스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체룸) EM예배 오전 10:00 (FC체룸) 오후 12:3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한중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오전6:0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성령침례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김삼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지사론 담임목사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2부 오전 7:3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영광빛복음교회 주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아래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 주일 오전6:00

은혜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평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작은자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CMF선교회 가정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F.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삼케어 대표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삼케어'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213.327.4710



HQ헬스, HQ산삼 대표
최창수박사가 주선한
한국 동아일보 1면 Top
커버 스토리 -
미국 산삼 특별 취재 기행



미국 야생 산삼

제가 한 뿌리 한 뿌리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특가세일!

미국 야생산삼

1 파운드 = \$1,000

(특대 4뿌리+ 대+ 중 사이즈 산삼 - 454그램)

+ 특별 선물

구연산, 소금(\$120상당) 무료 증정

작년 가격보다
50% 이하의 파격적 가격



300년된 산삼



미국 야생산삼 도매가 최대 유통회사로서 산삼의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기업입니다.

한국 동아일보가 파견한 특별 취재팀과 함께 미국 산삼의 대량 서식지들을 탐사하면서 심마니들과 딜러들의 채취와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산삼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한국에서의 미국 산삼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8일 동안 미국 동부 아팔라치안 산맥의 산삼 서식지 중 NY, VA, NC 주 등 여러 주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왼쪽 맨 밑의 사진은 수많은 심마니들과 함께 채취한 야생산삼들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Life



[성지순례 칼럼]

출애굽 시 열 재앙에 대하여

우리는 출애굽 시 열 재앙(출 7:20-12:30)에 대하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열 재앙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건을 신들과 결부시킨다. 특히 이집트는 다신 국가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들의 싸움을 엿볼 수 있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아훼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신이 참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열 재앙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은 이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처하는 집도 있어야 된다. 신이 거처하는 집이 바로 신전이다.

출 5: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신은 이름이 있어야 하고, 또한 거처하는 집도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 온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의 신인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모세는 바로에게 요구한다. 바로는 들어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신의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바로는 모세에게 "여호와와 누구냐?", 즉 "너의 신의 이름이 무엇이나?", "거처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름도 없고, 거처도 없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식이다.

그렇기에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하나씩 깨뜨려 바로에게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열 재앙 사건이다.

출애굽 직전에 나오는 장자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완전수 10으로 현시된 여호와의 10대 재앙은 '참 신'과 '거짓 신'의 존재를 선포하 드러내 보여준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10대 재앙은 애굽의 우상 종교에 대한 여호와와의 심판이요(출 12:12), 열방에 유일하신 참 신의 존재를 선포한 여호

와의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출 9:16).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예표적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준다.

첫째 재앙 - 나일강이 피로 변함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예배의 대상이다. 나일강을 위한 기도, 찬미, 예배를 드렸었다.

고대 나일강의 찬가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주가 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에서 뒤집히면 신들은 망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즉 나일강은 애굽인들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활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Osiris), 나일강의 신 하피(Hapi), 홍수의 여신 사테드(Satet), 그의 인니인 안퀘드(Anquet) 신 등이 첫째 재앙에서 망해버리는 것을 애굽인들에게 보여 준 것이다. 특히 하피는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을 상징하는 신이다. 나일강의 범람은 땅에 퇴적을 쌓아 기름지게 만들어 주어서 농산물이 잘 되었기에, 하피는 농작의 신으로도 여겨졌다.

그리고 물고기와 새를 관장한다고 믿기도 하였다. 고대 애굽인들은 매년 범람의 시기가 오면 하피 신이 출현한다고 믿었다. 하피 신은 사막에 풍요로운 흙을 가지고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윤택한 땅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이런 풍요함으로 인해 그는 "신들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신이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은 신들의 아버지 하피 신을 내리친 것이다. 누가 참 신인지를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첫째 재앙이다.

둘째 재앙 - 개구리를 없애버리는 재앙

이 재앙은 개구리로 나타나는 크눔(Khnum) 신의 부인 헤큐트(Heqet)를 친 것이다. 애굽인들은 헤큐트(Heqet)가 개구리 여신으로서 부활의 상징이요 비옥의 표상으로, 개구리가 거처에 나타나면 그 해의 길조라고 생각했었다. 이 개구리신을 한꺼번에 없애 버리는 사건이 두번째 재앙이다. 헤큐

트는 개구리 모습으로 묘사되는 생명과 다산의 여신이다. 나일강이 범람한 후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태어나는데, 이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보았던 것이다. 헤큐트여신은 보통 개구리 혹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인으로 그려진다. 이 여신은 자주 크눔(Khnum) 신의 아내로 언급되기도 한다. 태양신 Ra가 Atum-Ra가 될 때, 신생아를 낳는 자로서 헤큐트는 누트(Nut)와 게브(Geb)의 아버지인 수(Shu)의 아내이다. 수의 첫 아내는 테프누트다. 헤큐트 숭배는 적어도 고 왕조 때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제2왕조 때 태어난 고위층의 이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이고 있으며, 개구리 작은 동상은 고왕국의 왕릉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중왕조 때 출생의 여신이라고 여겨졌고, 산파(midwife)는 흔히 헤큐트의 여종(Servants of Heqet)이라고 불렸다. 오시리스와 이시스 전설이 발전될 때에는 호러스(Horus)가 태어날 때 새로운 육체에 숨을 불어 살게 한 여신이 바로 헤큐트다. 아기가 출산될 때 마지막 순간을 관장하는 여신이 바로 헤큐트다. 호러스는 태양신 오시리스의 부활과 연관이 있어서 헤케트의 역할은 부활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다산의 신이며 축복의 신 헤큐트를 침으로써 참 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재앙이다.

셋째 재앙 - 이를 멸하는 재앙

세번째 재앙은 이에 대한 재앙이다. 애굽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신(地神) 셉(Seb)에게 내린 것이다. 애굽인들은 지신 셉 덕분에 온갖 혜택을 입고 산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 이를 한 순간에 없애버림으로써 살아 있는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재앙 - 파리를 멸하는 재앙

네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다. 고대 애굽에서는 파리 중에서도 맴시파리(Ichneumon Fly)를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섬겼다. 파리의 신 바알세툼을 치는 재앙이 네번째 재앙이다. 바알세툼을 어원적으로 풀어 보면 '바알'은 "주"이며, 세툼은 파리

혹은 날벌레라는 뜻이다(사 7:18, 전 10:1). 즉 "날벌레의 주" 혹은 "파리의 주"란 뜻이다. 파리 혹은 날벌레 형상을 한 신으로, 파리로 질병을 생기게도 하고 그 질병을 낫게도 하는 신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다. 고대인들은 파리라는 생물이 악령 그 자체거나 혹은 사람에게 악령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들은 파리가 껴있던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데다, 썩은 고기나 쓰레기에 떼지어 몰려드는 파리떼를 보고는 정말 불길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불길한 파리떼를 거느리는 자가 바로 바엘세툼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블레셋의 다섯 도시국가 중 하나인 에그론(Ekron) 사람들도 이 신을 믿었다(왕하 1:2-16)

다섯째 재앙 - 가축을 치는 재앙

애굽에는 수많은 가축신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암소의 여신 하돌(Hathor)이 으뜸이다. 하돌은 18왕조 때에는 주신이었다. 또한 황소신 아피스(Apis)를 잘 섬기면 내세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애굽인들은 믿었다. 내세를 보장하여 주는 신들이 가축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내세를 주관하는 신은 아훼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재앙 - 독종을 일으키는 재앙

이 재앙은 풀무의 재를 바람에 날려 독종을 일으킴으로써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태풍과 전쟁의 신인 레슈푸(Reshpu)와 퀘테슈(Qutesh) 수렉(Sulech)에 내린 것이다. 이 재앙으로 사람과 가축이 고통을 당해도 고칠 힘이 없는 의학의 신 임호텝(Imhotep)을 친 것이다. 의학의 신 임호텝은 고 왕국 시절에 피라미드를 처음 건설한 사람이다. 애굽인들에게 의학인 임호텝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병을 주관하는 신은 바로 아훼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일곱째, 여덟째 재앙 - 우박과 메뚜기를 보낸 재앙

우박이나 메뚜기 재앙은 애굽인에게 풍요한 수확을 약속하고 경배를 받는 그들의 신들의 무능과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실력 행사이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풍요한 수확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며, 누가 풍요한 수확을 내리게 하고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신인지를 알려주는 재앙이다.

아홉째 재앙 - 흑암

아홉째 재앙으로 빛이 사라졌다. 몸을 굽혀 궁창을 만들고 있다는 하늘 여신 누트(Nut), 하늘을 거처로 삼고 해로 얼굴을 나타낸단 호러스(Horus)신, 일월성신을 주장한다는 도드(Thoth)신, 불의 여신 세크멧(Sekmet), 일출신 프타(Ptah), 일몰신 테무(Temu), 주신인 태양신 라(Ra)가 이스라엘의 참신 여호와에 의하여 제압당한 것을 만천하에 알려 주고 있다. 즉 흑암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참 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열째 재앙 - 장자

애굽의 주신 라(Ra)는 태양신이다. 그는 때때로 암소의 첫 새끼 황소로 땅 위를 걷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침으로써 출생의 신 메스케밋(Meschemit)도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리하여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아무 것도 남음이 밝혀지고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이 폭로된 것이다.



김경규 목사
령전교회 중동 선교사
크리스찬 해피투어 중동 선교사
성지 가이드북 저자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코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채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채장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신제품
소비자 공급가 \$76
*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621 S. Virgil st. Suit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지역에 보냄받은 선교사



17일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사진 왼쪽부터)유용석 장로, 배현찬 목사, 김동일 목사, 박상진 간사가 참여해 발언했다.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최한 제 14회 건강교회포럼이 '지역사회는 섬기는 교회(부제: 한인교회의 사회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17일 오후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국제대학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맨 먼저 배현찬 목사(위싱턴 주예수교회)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패널토론에 김동일 목사(은혜의방주교회)와 유용석

장로(LA기독교윤리실천운동)가 참여했으며, 박상진 간사(LA기독교윤리실천운동)가 전체 토론진행을 맡았다.

배현찬 목사는 "오늘날 교회선교에 실제적으로 그 이론을 접목 개발하고 있는, 앨런 록스버그(Alan J. Roxburgh)와 스콧 보렌(Scott M. Boren) 등에 의해 점점 확장돼가는 가운데 보내는 교회와 받는 교회의 이분법적 선교방정식을 거부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공동체는 자신이 속

한 문화와 지역에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추세다"고 언급하면서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비추어볼 때 다인종사회를 살아가는 이민교회에 있어 지역사회 봉사 내지 사회선교는 그야말로 '선교적 교회의 실재화'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인종사회를 향한 사회선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기독교인은 사회적 책임에 민감해야 한다. 존 스토트의 말처럼, 기독교인은 비기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최 제 14회 건강교회포럼

독교인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반드시 비기독교적인 사회에 침투해 들어야 하며, 비기독교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독교인은 사회에 침투하되 동화되지 않은 채 나름의 특수성을 유지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목사는 "다인종사회 속에서 사회선교는 이러한 신앙적 사명 감당이고, 시민사회의 책임적 행동화"라고 단언, "점점 다인종화 되어가는 현 세대를 냉철히 받아들이고 공동체적 사명감으로 무장해 이민교회가 뿌린 내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김동일 목사는 "LA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때문 '선교적 교회' 개념을 말할 때 이것이 수단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교회란 다소 래디컬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는 주님의 제자들이 래디컬했기 때문이

다. 또한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일한 태도에 머물러 있는 이민교회를 깨울 '폭탄'이 필요하다. 마치 신학계에서 칼 바르트의 출현을 가리켜 '(그가) 신학자들이 놓고 있는 놀이터에 폭탄을 터트렸다'고 혹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다"고 했다.

이에 배현찬 목사는 "요즘 선교적 교회 개념에 대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교회론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회 그 자체가 선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라며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건강하고 균형잡힌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자기반성과 자성을 거듭하며 역사적인 해석을 계속해 나간다"고 했다.

한편, 이날 마련된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 2회 사회봉사상 시상식에서 민족학교와 부모님선교회, 빛나라선교회교회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토마스 맥 기자

뉴저지 주 미국 내 14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

뉴저지 주가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에 이어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주의 대열에 섰다.

뉴저지 주 법원은 지난달 27일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해당 사법당국은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받아들였으니 뉴저지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판

시했다.

다른 대부분의 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 혹은 불법으로 규정하는 명문화된 법을 갖고 있는 데에 비해 뉴저지 주는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다. 과거 의회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됐으나 크리스티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주 법원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뉴

저지 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주 정부가 10월 21일까지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는데 크리스티 주지사 등은 상소를 포기했으며, 동성애자들은 뉴저지 주 뉴아크시에서 21일 오전 0시 1분부터 9쌍이 결혼식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지은 기자

유타 주에서도 동성결혼금지법

철폐소송 진행중

전국적으로 동성결혼 지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타 주는 "책임있는 생식(responsible procreation)"이란 관점에서 전통결혼만이 이에 부합된다고 동성결혼에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유타 주는 최근 지방법원에서 "우리 주는 어린이를 우선시하는 문화 갖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이며 여전히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전통결혼을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타 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법을 철폐하려 소송 중이다. 이 법은 2004년 유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역시 프로포지션 8이라는 동성결혼 금지법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바 있지만, 주 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고 연방대법원

역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유타 주의 동성애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전례처럼, 이번 소송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타 주의 반동성결혼법은 주 자체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 결혼한 커플도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3쌍의 동성결혼자들은 "이 법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 정부는 "이 법은 결혼의 권리를 제약하지 않는다. 다만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3. 고난/신실함:

▷아시아는 계속하여 매우 인간 고난의 땅이 되고 있다. 인신매매, 질병, 그리고 가난이 지속적인 관심사 되고 있다. 거기다 아시아 선교사들은 종종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 박해를 받기도 한다. 선교에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할 때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제자도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위해 값을 치를 각오를 요구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시아에서의 엄청난 고난과 함께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할 것이다.

4. 다양성/파트너십:

▷우리는 아시아에 여러가지 선교양식과 교회형태를 전수받았다. 선교에 있어서 더 큰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때도 너무 자주 이러한 분과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다 훌륭한 동반자 관계와 협력 속에 이룩하기 위하여 겸손함과 상호 신뢰를 요구한다.

5. 외래 패턴/진정한 아시아적 모습:

▷아시아에서 발전된 많은 교회들은 아시아의 문화적 상황, 특히 종교적 상황에 부적절한 외국 형태들을 전수받았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 영광스럽게 이해하게 해주는 아시아적

인 사고방식과 행위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결론〉 지난 40년 동안 아시아 선교협의회 지도자들은 협력하여 아시아선교운동으로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충실하기를 헌신하였다. 우리 앞서서 가신 분들의 이러한 헌신을 지속하면서 우리는 보다 더 신실하도록 분발한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적절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오늘 세계 교회의 일부로, 세계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관심 부분에 재헌신한다. 우리는 더 큰 일치, 더 깊은 제자도, 그리고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좀더 심오한 동일화를 추구한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맥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라성빌라델비아교회

4대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예수교 장로회 라성빌라델비아교회의 4대 이영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2013년 10월 27일(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격려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천일 원로목사 및 교우일동 -

- 일시: 2013년 10월 27일 주일 오전 11시
- 장소: 라성빌라델비아교회 (The Korean Philadelphia Presbyterian Church of Los Angeles)
- 주소: 927 Bonnie Brae Street Los Angeles CA 90006
- 전화: 714 319 2234



조천일 원로목사



이영 담임목사

배우 양동근, 할렘에서 “소울이 없다” 독설 들은 사연

리얼 소울 찾는 여정 담은 ‘블랙가스펠’의 뒷이야기



영화 ‘블랙가스펠’의 한 장면.

래퍼로도 유명한 다재다능한 배우 양동근이, 뉴욕에서 리얼 소울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담은 영화 ‘블랙가스펠’(제작 스토리넷, 배급 NEW)을 촬영했다. 오는 11월 14일 한국서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양동근이 뉴욕에서 소울을 배우기 위해 혹독한 대우를 받은 사연이 밝혀져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양동근은 그만의 흥겨운 랩과 그루브로 힙합 매니아는 물론 대중적으로도 그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래퍼이다. 얼마 전에도 KBS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추석특집 남진 편에서, ‘동지’를 랩으로 재해석하며 첫 출연에서 우승을 차지해 다

시 한 번 그의 끼를 입증한 바 있다. 이렇듯 배우 뿐만 아니라 뮤지션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양동근이 ‘블랙가스펠’을 배우기 위해 떠난 뉴욕 할렘에서 난생 처음 노래로 댄통 혼쫓아 나갔다. 영화 ‘블랙가스펠’은 동갑내기 친구인 양동근, 정준, 김유미가 뉴욕 할렘

을 찾아 블랙가스펠을 배우고 현지인들과 함께 콘서트를 연다는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그린 실화 영화다. 이들이 블랙가스펠 수업에서 호랑이 선생님을 만나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친 사실이 밝혀졌는데, 한국의 내로라 하는 스타와 뮤지션을 긴장시킨 이가 누군가 알고 보니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가스펠 가수이자, 휘트니 휴스턴의 어머니인 씨씨 휴스턴의 앨범에 참여한, 블랙가스펠의 대가 ‘위다 하딩’이다. 수많은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보아 온 그녀는 첫 만남부터 “당신의 노래엔 기교만 있을 뿐 소울이 없다”며 기선제압하고,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아간 스타들은 이에 망연자실하게 된다. ‘블랙가스펠’은 노예 시절 흑인들의 아픔과 희망을 담고 있는 노래이니만큼 세련된 테크닉보다는 진정한 교감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녀는, 이어지는 무수한 독설들로 ‘슈퍼스타’에서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거침없는 독설가의 대명사가 된 이승철을 능가한다는 뒷담화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한국의 스타들에게 독설을 퍼부은 이유가 추후 밝혀져, 결국 모든 출연진은 그녀를 김태원을 능가하는 위대한 멘토라고 불렀다.

그렇기에 기존에 가수였던 양동근은 물론 국내 최정상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까지 무참하게 혼이 났다. 진짜 교감을 이루기 위해 뉴욕 할렘의 구석 구석을 다녀보라는 미션까지 내린 위다 하딩. 과연 양동근을 비롯한 친구들은 이 미션을 완수하고 무사히 콘서트를 치러낼 수 있었을까? 스타들의 혹독한 미션 수행기를 담은 영화 ‘블랙가스펠’은, 올 가을 뉴욕에서 온 진짜 블랙소울을 소개하며 영화 팬은 물론 음악 매니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것이다.

MUSIC

크리스토퍼 필립스

‘감사’ 주제로 ‘We Give Thanks’ 발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다수 담겨

가을에 들을 만한 피아노 찬송가 연주 앨범을 소개한다. 피아니스트 ‘크리스토퍼 필립스’는 데이빗 헌트싱어, 스티븐 휘트마이어와 함께 내슈빌을 배경으로 연주활동과 레코딩, 교회사역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정상급 클래식 팝재즈, 인스피레이셔널 피아니스트이며, 레코딩 아티스트이다. 크리스토퍼 필립스는 내슈빌, Christ Church(그리스도교회)의 예배예수 디렉터로, 교회 프레이즈와 워십 파트의 총괄 감독으로 섬기고 있다.



그가 이번에 내놓은 앨범의 컨셉은 ‘감사’다. 원제 ‘We Give Thanks’

감사를 드립니다)와 함께 부제 ‘15 Thanksgiving Hymns on Piano(피아노로 듣는 15곡의 감사 찬송가)’가 선명하게 보여주듯, 크리스토퍼 필립스는 자신 뿐 아니라 이 음반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격려하고 있다. 첫 곡 ‘참 아름다워라’로 문을 열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세상 풍파 너를 흔들여, ‘다 감사드리세’로 이어지는 음악들은 한국인에게도 가장 사랑받고 있는 찬송가다.

한국어 찬송 12곡 포함된

‘미국장로교 새찬송가’ 봉헌

미국장로교(PCUSA) 새찬송가(Glory to God, WJK Press 2013) 발매를 기념하는 봉헌예배가 지난 17일(목) 컬럼비아신학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번 새로 선보인 찬송곡집에는 1만여 곡이 넘는 후보곡들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PCUSA 찬송곡선별위원회에서 선별한 853곡이 실려 있고, 이 가운데 12곡이 한국어 찬송곡이다. 한국어 찬송곡은 영문과 한국어 가사가

동시 게재돼 있다. PCUSA 새찬송가 출판을 위해 그간 찬송곡선별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컬럼비아 신학대학원 허정갑 교수(예배학, 한미목회 연구소장)에 따르면, PCUSA는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찬송가, 복음성가, 현대 기독교음악(CCM), 경배와 찬양 음악에 대해 심사를 벌인 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등 한국인 곡 12곡이 포함된 총 853곡을 선정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북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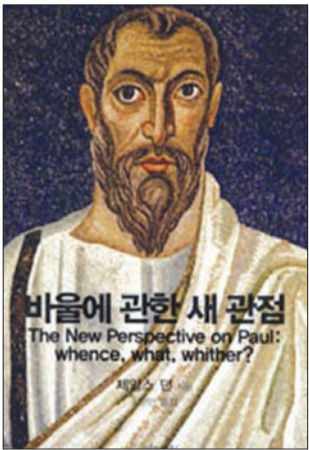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REVIEW

바울에 관한 새 관점 vs 바울에 관한 새 관점

종교개혁주간, 계속되는 '이신칭의' 논쟁



바울에 관한 새 관점 제임스 던 | 최현만 역 | 에클레시아북스 | 196쪽

지난해 봄, 똑같은 제목의 책이 잇따라 출간됐다. '바울에 관한 새 관점'. 두 책은 심지어 앞표지마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

먼저 나온 책은 '새 관점학파'의 선두주자이자 <예수와 기독교의 기원(새물결플러스)>, <바울신학(크리스찬다이제스트)> 등의 저자인 제임스 던(James D. G. Dunn)이 '새 관점'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명하며 논의를 진전시키는 내용이었으며, 한 달여 뒤에 나온 책은 <칭의란 무엇인가(부흥과개혁사)>를 쓴 가이 프렌티스 워터스(Guy Prentiss Waters)가 '새 관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제목 다른 책' 2권을 꺼내든 이유는, 최근 SNS를 시작으로 '새 관점'이 다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윤 교수가 관련 내용으로 <칭의와 성화(두란노)>를 펴내기도 했고, '새 관점'을 지지하는 톰 라이트가 각광받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교

개혁주간을 맞아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자 바울이 힘있게 부르짖었던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던 " '새 관점' 은 신선하고 가치있는 통찰"

E. P. 샌더스, N. T. 라이트와 함께 '바울신학의 새 관점'을 대표하는 학자인 제임스 던은 이 '새 관점'이 바울신학에 관한 신선하고 가치있는 통찰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독교의 사도 된 '바리새인' 바울의 선교와 신학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그는 그러나 '새 관점'이 유일하다거나, 어떤 혹은 모든 옛 관점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 말한다.

책에서 던은 '새 관점'에 대해 스무대교가 은혜에 기초하고 있고 스물 법이 지닌 사회적 기능이 이스라엘의 언약적 신율주의의 필수적 측면이었으며 삼칭의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주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뒤틀린 장벽을 극복하려 했고 스물 법의 행위들이 바울의 설명 안에 핵심 슬로건이 된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 관점'에 대한 반대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지닌 이러한 차원을 인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기독교를 왜곡하고 격하시켜온 인종주의·민족주의와의 전쟁에서 핵심 요소를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관점'에 대한 비판의 쟁점도 스대 관점은 전통적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반제 및 반박으로 형성됐다 스자신이 '율법의 행위들'을 일부 '경계표지' 정도로 그의 미를 축소했다 스율법에 대한 바울의 반대를 단순히 '태도' 반대로 축소했다 스자신이 안디옥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바울의 칭의 교리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 네가지로 정리하면서,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칭의 교리에 대한 핵심적 강조는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기초"라는 것이다.

원 저서(The New Perspective on Paul)의 서론 부분만을 발췌한 이 책에서 던은 결론을 통해 기독교 전통에서 있는 학문이 유대교를 반역하고 무익하며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이라 묘사하는 과거의 설명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유대교와 기독교, 율법과 은혜, 순종과 믿음에 대한 선명한 대조에 입각해 바울의 칭의 교리를 해석했던 전통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그는 '이신칭의' 교리는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재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신칭의'와 '행위에 따른 심판' 사이의 내적 관계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원제 'The New Perspective on Paul:whence, what, whither?'

가이 워터스 "새 관점, 칭의를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 교리로 잘못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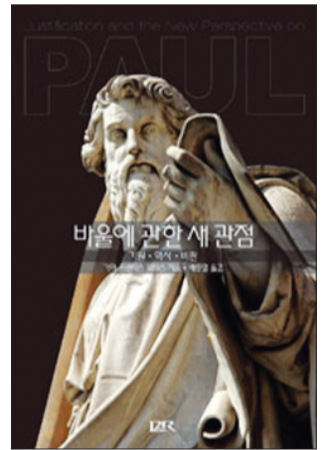
가이 P. 워터스는 김세윤 박사의 <칭

의와 성화>처럼 '새 관점'의 기원부터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 관점'의 진원지는 어디이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지지자들이 누구이며, 이 운동에 왜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출발하지만, 19-20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요 주장들을 편견 없이 인용하지만, 저자는 '새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는 '새 관점'이 바울신학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Westminster Standards)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새 관점'에 대해 저자가 제기하는 신학적 문제점들은, '은혜와 율법주의, 공로'를 혼동하고 있고, 바울의 전가 교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며, 법적 은혜와 변형적 은혜의 균형을 뒤엎고, 칭의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특히 칭의의 재정의에 대해 "새 관점은 칭의를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 교리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바울의 정통 해석자는 칭의교리에 교회론적 함의가 있다고 논쟁한 적이 없고, 바울 자신도 이 함의들을 로마서 9-11장과 로마서 15장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한다.

'새 관점'을 최초로 제기한 샌더스의 제자인 저자는 "지난 수년간 개혁과 기독교 안에서 새 관점의 가르침과 입장은 점점 더 개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톰 라이트의 공헌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새 관점이 개혁주의 안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7가지 제시하고 있다. 주요 논거들을 보면, 먼저 라이트는 샌더스의 모델 및 이와 함께 오는 학문적 신뢰를



바울에 관한 새 관점 가이 프렌티스 워터스 | 배종열 역 | P&R | 392쪽

상실하지 않고서도 샌더스가 가져온 난제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 새 관점은 불편할 정도로 개혁주의의 경험적 종교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서 그는 '새 관점'이 '제네바(칼빈)가 아닌 '로마(가톨릭)'를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 개혁주의적이야 한다는 미명 하에 교회를 세례적 종교로 이끌려는 일부 개혁파 교회들의 논증을 주의깊게 확인하면, 루터와 칼빈이 실수했고 트랜트공의회가 옳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합동신대 이승구 박사는 추천사에서 "실질적으로 새 관점은 종교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라이트의 주장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신칭의나 재림 이해 등에 대한 그의 논의는 받아들여지기 무리가 있다"고 했다. 원제 'Justification and the New Perspectives on Paul'.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정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9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뺀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COVERSTORY 찬양사역자 유가나 전도사, 1집 'Must Worship' 발매

“무대 위와 아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찬양사역자 유가나 전도사

핑크의 '루비', 유채영의 'Shake' 등 대중가요 뮤직비디오 20여편의 조연출 및 연출자라는 이력을 가진 예배·문화 사역자가 'Must Worship'이라는 타이틀로 1집 앨범을 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예배 인도는 물론 예배 코디네이팅, 기획, 안내, 콰이어, 총괄 디렉터 등으로 섬겼다. 그는 “무대 위와 아래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표현했다. 다음은 찬양사역자 유가나 전도사(한국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예배담당·젊은이예배 예배 인도자)와의 인터뷰 전문.

“가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가나”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때론 기억을 못했으면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웃음) 제 이름은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비신자셨던 친할아버지께서 작명소에 가서서 ‘봄 춘(春) 자에 새 봉(鳳)자, ‘춘봉’이라고 이름을 지어 오셨고, 너무나도 존스러운 이름에 놀라신 어머니께서 택시를 타고 주민센터로 황급히 이동하시면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뜻 없이 어감만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2년 예수님을 만나고 2005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제 인생 역사 기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이라는, 제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여 재학하던 중, 뜻하지 않은 기회에 대중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는 감독으로 화려한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름 부와 명성을 쌓게 되어 탄탄대로를 달리던 저는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면서 무리한 욕심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소진하고 큰 빚을 지면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싶던 그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6월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진 3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즐겨 듣던 찬양이 디사이플스의 ‘목마른 사슴’이었는데,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고 그 분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천관웅 목사님과 처음 만나고, 이듬해인 2005년 디사이플스 멤버가 되어 예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사역을 시작한 시점에 비해 첫 앨범 출시가 늦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배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역할과 분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배 코디네이팅, 기획, 안내, 콰이어, 예배 인도, 총괄 디렉터 등 무대 위와 아래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옛말에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다양한 우물을 파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앨범을 내며 사역하는 일은 제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디사이플스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 천관웅 목사님께서 외부 집회에 나가실 때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세워 주시면서 예배 인도자로서 첫 마음을 품고, 그 때부터 이런 예배 앨범에 대해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을 다 빼게 하시고, 제 스스로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제가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번 앨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공연 기획과 연출로도 많은 작업들을 해오셨는데요.

“사실 공연 기획과 연출로 활동한 것은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예배 인도자로서의 마음을 품고, 마치 다윗이 초장에서 양을 치던 것이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연단받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필요한 곳에 쓰게 되었고, 그 영역이 예배·공연 등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들은 궁극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 그리고 겸손함과 순종을 쌓는 시간들이 되었고, 무대 위와 아래의 경계를 허물고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는 제게 ‘숙명’과도 같습니다. 제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삶의 전 영역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길 원하며,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의식적인 예배와 일상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일치되는 그런 삶, 그런 예배가 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전하고 싶은 주제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사사기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해 많은 묵상을 하였고, 포도주 틀에서 허우적거리던 기드온을 시대를 구하는 용사로 부르신 것과 그를 통해 단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300명의 용사를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


님의 역사를 보며, 이 앨범이 이 마지막 때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예배의 용사들을 소집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기도하며 만들었습니다. ‘MUST WORSHIP’이란 타이틀은 이런 의미에서도 부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앨범을 토대로 주중 예배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MUST WORSHIP’ 앨범은 아마도 개인이 아닌 예배팀의 앨범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어떤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은지?

“제 사역 여정에 영향력을 주셨던 4명의 사역자는 천관웅 목사님, 정신희 목사님, 김명식 교수님, 김영표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분들과 사역하면서 천관웅 목사님의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센스를, 정신희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송고함을, 김명식 찬양사역자의 감성과 꿈을, 김영표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심자가 사랑을 담고 싶었습니다.”

세계 바람이 있다면 부디 이 분들처럼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힘을 심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을 ‘전심으로’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u.edu www.wc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여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티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깍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티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깍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티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팔리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전기 . 철공

용접, 게이트

모터 수리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경남 철공소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타이밍벨트

투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야채만두

• 고기만두

• 물만두

• 김치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213.368.0922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줄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나서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궁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진정한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투쟁

미국의 위축된 종교자유 해결책은 있는가

21세기 신앙, 문화 및 종교 자유 심포지엄 개최

최근 미국 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교계 크리스천들이 '모두의 자유'가 아닌 '자신들의 자유'를 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이하 ERLC) 러셀 무어(Russell Moore) 회장은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1세기 신앙, 문화 및 종교 자유' 심포지엄에서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중 하나가 이 같은 다수의 이해"라면서 "우리는 모든 이들의 종교 자유를 위해 부지런히 싸우기보다 우리만의 권리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침례회 신학자이기도 한 러셀 무어 박사는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들의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우리는 그것이 모스크(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와 맨해튼 선언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무어 교수를 비롯해 헤리티지재단 국내 정책연구를 맡은 제니퍼 마셜(Jennifer Marshall) 박사, 데일리리스트와 USA투데이의 칼럼니스트 커스틴 파워스(Kirsten Powers), 조지타운대학

교 종교·평화·세계 활동을 위한 버클리센터(Berkeley Center for Religion, Peace & World Affairs) 책임자인 티모시 샤(Timothy Shah) 박사, 뉴욕타임스(NYTimes)의 칼럼니스트 로스 도멧(Ross Douthat) 등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정책연구원인 앤드류 워커 박사가 맡았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 박해와, 미국 내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다뤘다. 또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와 더불어 칩펠레(Chick-fil-A), 일부 다처제, 가톨릭과 복음주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멧 칼럼니스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의 종교 자유를 위한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논쟁과 동시에 이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관점을 지지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대다수가 이러한 관점이 보호받을 필요가 없고 끔찍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멧은 또한 "만약 사회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관점이 성과 관련된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편협하고, 끔찍하고, 파괴적이라면, 법에 명시된 종교적 관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1세기 신앙, 문화 및 종교 자유' 심포지엄에 참여한 (사진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러셀 무어 박사, 커스틴 파워스 칼럼니스트, 티모시 샤 박사, 제니퍼 마셜 박사, 로스 도멧 칼럼니스트

용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워스 칼럼니스트는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살다 보면 박해를 받게 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종교적인 박해에 대한 증오로 가면 안 된다. 때때로 나는 기독교인들이 매우 자기 연민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곤 한다. 사회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식이다. 이는 정부에 의한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 박사는 "정부가 종교적인 관점이 아닌 세속적인 관점에 대한 호감을 더욱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두렵다. 미국 정부가 사회 내의 한 가지 관점에 대한 편애를 나타내는 데 강제적인 권력을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시민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드러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동성애 반대가 인종차별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특정 단체의 관점에 대해 정부가 조직적·강제적 편애를 한다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권력을 이용해 우리가 가치가 없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유용하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않은 시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벌써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토론 내용은 ERLC 웹사이트 <http://erlc.com/article/event-oct1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강혜진 기자

“고용, 해고할 권리” vs “개인의 자유” IVF에서 충돌



IVF의 캠퍼스 사역 모습

기독교 단체가 자체적인 종교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해직하는 것이 합법일까? 최근 신시내티 주의 한 가톨릭 학교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여교사를 신앙 규정 위반으로 해고했다가 17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이 논란은 더욱 거세다.

종교 단체가 "해당 단체의 종교적 신념대로 직원을 고용할 종교의 자유"와 개인이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할 종교적 자유"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시건 주의 대학선교단체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엘리스 콜론 씨는 그랜드래피즈 시에 소재한 IVF 지부의 영성 디렉터로 7년간 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혼을

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 문제를 미시건 서부지법에 고소했다.

IVF 측은 "수정헌법 1조의 종교자유 조항은 종교 관련 단체 고용주가 신앙을 기준으로 해 직원을 고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장한다"고 밝혔다.

엘리스 콜론 씨는 자신이 별거하거나 이혼할 것이라 사실을 자신의 상사에게 알린 이후, 유급 휴직 처분을 받았다. IVF 측은 자체 규정에 따라 유급 휴직을 통고한 후, 각종 상담 활동을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IVF는 콜론 씨의 남편과도 연락해 둘 간의 화해와 재결합에 관해 상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IVF의 이런 노력은 결국 무위에 그쳤고 둘은 이혼했다. 그리고 자체 규정에 따라 콜론 씨는 결국 해직된 것이다.

소송에서 콜론 씨는 자신처럼 이혼하고 재혼한 2명의 남성은 해직되지 않았으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IVF는 전국에 700개 이상 지부를 두고 대학생들을 선교하고 있는데 신앙 신념과 세속적 규정 간에 마찰을 자주 겪어 왔다.

최근 터프트대학, 미시건대학교는 이 학교 내 IVF가 리더들에게 신앙확인서를 요청한 것이 학교 측의 차별금지조항에 어긋난다며 동아리 활동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버팔로대학에서는 IVF가 단체 소속 회계를 향해 동성애자란 이유로 사인을 요구하자 대학 측이 IVF 활동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Fall Event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품질로 모시는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던 현대차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나보세요!

2013 Sonata GLS 0% For 60 Month + No Payment For 90 Days



2013 Elantra GLS 0% For 60 Month + No Payment For 90 Days



2013 Veloster GS M/T \$159 +TAX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150
MSRP \$18,980 (STK# F303F45)
PH HYUNDAI D/C \$405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2013 Genesis Coupe M/T \$259 +TAX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150
MSRP \$25,385 (STK# C0303R45)
PH HYUNDAI D/C \$938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스티브 장
626.723.3336



에드윈 김
626.610.6570



로버트 정
323.839.7074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중개인으로부터 차를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 없이 푸엔테힐스 현대를 통해
직접 구매하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